

아르헨티나 거주 파라과이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통합의 한계*

구 경 모
(부산외국어대학교)

I. 서론

아르헨티나에는 19세기 중반부터 이주한 유럽계 이민자들부터 최근의 ‘인접국 이민자(inmigrante limítrofe)’¹⁾까지 외부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민자들로 인해 도시의 경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다양한 이주민 집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도시의 경계에 따라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된다. 한 집단은 수도에 사는 사람을 일컫는 포르테뇨(porteño)이며, 다른 집단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꼰우르바노 보나에렌세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2-A00003)

1) 이하 ‘ ’는 생략한다. 인접국 이민자는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와 볼리비아, 우루과이, 브라질, 칠레 등 국경을 접한 국가에서 온 이민자를 지칭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의 이민자인 파라과이 이민자와 볼리비아 이민자를 칭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공식 통계에서 경제력이 낮은 외국인 이민자를 칭할 때 인접국 이민자와 페루 이민자(Migrantes Limítrofe y de Perú)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conurbano bonaerence)이다. 뽀르떼노는 19세기 중반이후 이주한 유럽계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며 ‘전통적인 아르헨티나 사람’을 상징한다. 끈우르바노 보나에렌세는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페루 등과 같은 인접국 이민자 혹은 지방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정착한 곳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상징한다. 이러한 구분에 의해 끈우르바노 보나에렌세는 계급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사람을 표상하며, 더 나아가 유럽계 이주민인 백인의 뽀르떼노와 대비되는 짙은 피부의 사람을 지칭하는 인종 차별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인접국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은 1980년대 이후 대두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함께 인접국들의 이주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Halpern 2005, Cerrutti & Maguid 2006). 이와 더불어 1991년 남미 공동시장(Mercosur)의 출범은 파라과이를 비롯한 인접국 이주 노동자의 아르헨티나 정착(Vichich 2005, Gomez & Torre 2008)을 가속시켜 이민자에 대한 사회 문제를 증폭시켰다.

본 연구자가 파라과이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통합에 관심을 둔 것은 2007년 5월 파라과이의 소도시를 연구하던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에 소재한 이 도시 사람들의 향우회를 조사하기 위해 로마스 데 사모라(Lomas de Zamora)를 방문하면서였다. 로마스 데 사모라는 수도권에 속해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시(市)이다. 이 당시 연구자는 파라과이 이민자의 차별이 에스니시티²⁾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자는 2010년 1월과 2011년 2월의 현지조사를 통해 파라과이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계급적인 요소에 의해 표출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파라과이 이민자는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1950년대 친미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아르헨티나로 건너간 부류로서 정치인과 군인, 학자 등 상류층이 주를 이룬다. 두 번째는 1980년대 이후 직업을 구하기 위해 이주한 부류로서 농민과 도시의 저소득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는 정치적 요인에 의한 이민이며, 후자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이민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이민 부류는 까사 파라과야(Casa Paraguaya)라는 이민자 협

2) 에스니시티(ethnicity)는 종족성 혹은 민족성으로 번역된다.

회를 발족하여 파라과이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아르헨티나 사회에 동화되어 살고 있다. 이는 에스니시티적인 요소가 파라과이 이민자에 대한 차별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이민자들은 주로 이주 노동자들로서 볼리비아, 페루 이민자와 동일한 범주로 취급을 당한다. 즉 아르헨티나인의 이민자 차별은 국적 혹은 민족 정체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파라과이 이민자의 차별은 에스니시티적인 측면이 아닌 계급적 측면에 의해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파라과이 이민자를 비롯한 인접국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는 ‘인접국 이민자’들에 대한 타자화와 사회 통합에 관한 분석(Rizzo 2002, Domenech 2003, Bretal 2005, Grimson 1997; 200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담론에 기초하여 아르헨티나 정부는 인접국 이민자의 일자리와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빠뜨리아 그란데(Patria Grande) 프로그램을 2006년 4월 16일에 실시하였다. 이 정책 이후 약 224,897명의 인접국 이민자들은 임시 영주권 혹은 영주권, 주민 등록증(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이하 DNI)을 받았다. 이러한 제도적인 이민자 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에서의 파라과이 이민자 차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2009년의 인디펜디엔페와 보카주니어스와 축구 경기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응원선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정부와의 마찰을 빚었으며, 2010년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인도아메리카노 공원(Parque Indoamericano)에서 벌어진 이민자와 지역주민, 경찰과의 무력 충돌은 이민자와 아르헨티나인의 갈등이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의 계급적 측면의 파라과이 이민자 차별 실태를 살펴 본 후 통합 정책인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져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각 국의 이민자 통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의 2장에서는 파라과이 이민자 현황을 살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두 이주 노동자 가족 사례와

3) 1995년에 설립한 INADI(Instituto Nacional Contra La Discriminación la Xenofobia y El Racismo)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까사 파라과야 회원의 사례를 통해 파라과이 이민자 차별이 계급적 측면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4장에서는 이민자 통합 정책인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분석하여 이민자 통합 정책의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아르헨티나의 파라과이 이민자 현황

최근 몇 년 사이 파라과이 정부는 급격한 해외 이민의 증가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파라과이 이민자의 대다수는 20대와 30대로서 생계를 위해 타국으로 떠나고 있다. 이들은 현지 이민 중개자에게 속아 매춘으로 빠지거나 서류 미비로 인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젊은 부모의 해외 이민은 자녀 양육 문제로 이어져 가정 붕괴와 탈선이라는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파라과이 이민자의 가파른 증가세는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파라과이 이민자 수는 255,932명으로 2003년 이전까지의 누적 이민자 수인 362,723명에 육박하고 있다⁴⁾. 이런 추세라면, 2010년까지 파라과이 이민자 수는 전체인구의 10분의 1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민 요인은 직업과 공부, 가족, 의료 등 4가지 측면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직업은 91.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⁵⁾ 이민자의 대다수는 생계 수단을 위해 건너간 이주 노동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파라과이 이주 노동자의 직업은 건축 관련이 39.5%로서 가장 높으며, 가정부와 파출부는 34.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두 직업은 전체 파라과이 이민자 직업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⁶⁾

4) 이와 관련한 통계의 출처는 *Ampliando horizontes: Emigración internacional paraguayana*(2009: 62)임. 세계은행은 2005년 통계를 기준으로 파라과이의 이민자 수가 전체인구의 6.8%인 421,279명에 달한다고 밝히고(PNUD 2009: 51)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2003년 파라과이 이민자를 계산하였음을 밝혀둔다.

5) 이와 관련한 통계의 출처는 *Ampliando horizontes: Emigración internacional paraguayana*(2009: 68)임.

이러한 생계형 이민이 활발히 전개 된 것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파라과이는 경기 침체와 농지 집중으로 인한 노동 기회의 소멸 등으로 생계를 위한 해외 이민이 증가였다(PNUD 2009: 51).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이 실시되던 시기로,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은 해외 이민을 가속화하였다. 단적인 예로서 기반 경제가 취약한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가입 이후 대외 종속이 심화되었다. 특히 메르코수르의 강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자본의 농촌 침투는 파라과이 소농의 터전을 빼앗았고, 농민들을 도시 빈민 혹은 해외 이주 노동자로 전락시켰다.

파라과이의 주요 이민 대상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브라질 미국이며, 이들 국가 중 아르헨티나의 이민 비율이 가장 높다. 이 같은 현상은 아르헨티나가 파라과이와 인접해 있으며 같은 언어를 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르헨티나 이민은 19세기부터 꾸준히 지속되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친척들의 초대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파라과이의 이민자 비중은 다른 국가 이민자 출신에 비해 월등히 높다. 파라과이 이민자는 2001년을 기준으로 325,046명이며, 볼리비아가 233,46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에는 페루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⁷⁾ 파라과이를 비롯한 인접국 이민자들의 노동허가 비율은 29.7%로 낮은 수준이다. 70.2%의 인접국 이민자는 노동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⁸⁾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통계에 정확히 잡히지 않아 실제 노동 허가 비율이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은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제대로 된 임금과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6) 이와 관련한 통계의 출처는 Dirección Nacional de Población Secretaría de Interior 2009 Encuesta a inmigrantes en Argentina 2008-2009. 44p.

7) 이와 관련한 통계의 출처는 Dirección Nacional de Población Secretaría de Interior 2009 Diagnóstico de las poblaciones de inmigrantes en la Argentina 14p.

8) 이와 관련한 통계의 출처는 Dirección Nacional de Población Secretaría de Interior 2009 Inserción Sociolaboral de los Inmigrantes en la Argentina 28p.

III. 파라과이 이민자에 대한 차별

1. 파라과이 이민자의 경제적 상황

아르헨티나의 정부의 조사에서 보듯이, 아르헨티나인은 정규직의 비율이 58.2%에 이르지만, 인접국 이민자들의 경우는 불과 29.7%에 불과하다.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페루 이민자를 제외한 다른 국가 이민자의 정규직 비율은 아르헨티나인과 비슷한 45.3%로 인접국 이민자와 페루 이민자들의 경제적 열악함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수적으로 파라과이 이민자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로마스 데 사모라에 거주하고 있는 두 파라과이 가족⁹⁾의 일상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이민자의 일상과 살림살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가족은 건축업과 노점, 파출부를 통해서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사례 1) 다니엘(Daniel) 가족

다니엘 몰리노(37세)는 아내인 라우라 깐따나(33세)사이엔 5명의 자녀가 있다. 첫 째는 디아나(14세)이며, 둘째는 후안(13세), 셋째는 리치(11세), 넷째는 브라이언(8세), 막내는 줄리(2세)이다. 디아나는 다니엘과 그의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파라과이 출신인 그의 전처도 같은

9) 두 가족은 본 연구자의 주요 제보자인 파라과이의 홀리아(Julia)와 친척 관계에 있다. 다니엘 가족은 홀리아의 사위이며, 다른 가족인 아그리피나는 홀리아의 언니인 이나(Ina) 집에 살고 있는 먼 친척이다. 홀리아 가족은 파라과이 비야리까에서 지역의 소식을 알리는 잡지를 만드는 일을 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비야리까 사람들의 향우회가 열린다. 홀리아 부부는 매년 향우회를 취재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 간다. 연구자는 그 향우회를 조사하기 위해 홀리아 부부와 2007년 5월에 아르헨티나의 로마스 데 사모라를 방문하였다. 그때 사위집과 언니 집을 방문하여 파라과이 이민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인 2010년 1월에 연구자는 홀리아와 그녀의 친구와 함께 로마스 데 사모라를 방문하여 한 차례 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두 가족을 선택한 것은 일용직 건축업과 파출부, 노점상으로 일하고 있어 파라과이 이주 노동자의 직업적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 살고 있다. 다니엘은 파라과이 출신으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서 3살 때 파라과이로 다시 돌아갔다. 그는 13세에 페인트공으로 일을 하다가 다시 그의 아버지와 아르헨티나로 돌아왔다. 22살이 되던 해에 그는 지금의 부인인 라우라를 만난다. 다니엘과 라우라 이나(라우라의 이모)의 옆집에서 같이 세 들어 살면서 만나게 되었다. 이 부부는 첫 딸인 디아나를 홀리아(외할머니) 집으로 보내려고 한다. 왜냐하면 디아나의 학교가 멀고 로마스 데 사모라가 치안이 좋지 않아 큰 딸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이미 둘째도 아르헨티나의 포르모사(formosa)¹⁰⁾에 있는 친할머니 집으로 보낸 상태이다.

다니엘은 이웃집 짓는 일을 돕거나 올림뽀 시장(Feria Olimpos)에서 노점을 한다. 시장 노점일은 온 식구가 함께 한다. 라우라는 버스로 두 시간 걸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바리오 플로레스(Barrio Flores)에 있는 집에 파출부로 일한다. 그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올림뽀 시장은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장이 선다. 그리고 다시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장이 열린다. 올림뽀 시장은 옷과 신발, 기타 잡화 등 ‘가짜 브랜드’(나이키와 아디다스, 폴로, 라코스페 등) 상품을 판다. 이 시장은 매우 크고 유명하다. 시장에는 로마스 데 사모라 인근의 주민들과 수도(首都) 사람, 지방사람, 파라과이, 볼리비아, 브라질, 페루, 칠레 등 타국에서도 물건을 사러온다. 심지어 작년에는 인도 등 아시아의 상인까지 찾아왔을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진 시장이다. 올림뽀 시장은 강하천 주변으로 노점상들이 길게 늘어져 있으며, 노점상의 대부분은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사람들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볼리비아인이 올림뽀 시장에서 파라과이인의 상권을 점차 잠식하고 있다고 한다. 볼리비아인은 집안에 가내 수공업 형태로 재봉틀을 5대에서 10대 정도 구비해 ‘가짜 브랜드’ 물품을 생산하고 판매까지 맡고 있다. 다니엘도 그의 앞집에서 가내 수공업을 하는 볼리비아인 집에서 옷을 산다. 옷의 판매 가격은 보통 20페소 정도이며, 신발은 나이키일 경우 100페소¹¹⁾ 정도 한다.

다니엘 가족은 앞 집에서 여성용 민소매 상의를 구입하여 올림뽀 시장에 팔러 나간다. 노점의 하루 일과는 오전 7시부터 시작한다. 다니엘은 라

10) 포르모사는 파라과이 남쪽 경계와 인접한 아르헨티나의 도시이다.

11) 1peso는 약 0.25달러이다.

우라와 셋째인 리치가 시장 일을 도우러 함께 간다. 다니엘은 강 근처의 노점의 한 창고에서 맡겨둔 옷을 꺼내고 노점의 한칸에 자리를 잡는다. 노점 한칸 빌리는 데는 하루에 110페소이다. 리치는 옷판 것을 장부에 기록하고 페레레(terere)를 준비한다. 리치는 옷을 진열하는 것도 돕는다. 리치는 11살의 어린 소녀지만, 장사를 돕는 것은 어른 못지않다. 큰 딸은 집에서 막내를 돌보며 요리를 한다. 다니엘은 리치와 오후 3시까지 일하고 돌아온다. 오늘 번 돈은 300~400페소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노점 대여비와 물건을 떼 온 돈을 지불하면 온 가족이 매여서 번 돈은 100페소가 되지 못한다.

다니엘은 이틀 전 집에서 용접 할 때 안전 마스크를 구비하지 않아 눈에 불뚝이 튀어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그는 일찍 마치고 산타 루시아 시립병원(Hospital de Santa Lucia)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다. 이 병원은 시립으로 공짜로 치료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이다. 치료 후 저녁에 다시 집으로 온다. 요즘 이 부부는 브라이언의 말썽 때문에 속이 상한다. 브라이언은 부모와 어리광부리고 장난치기를 좋아하지만, 일상의 노동에 피곤한 부부는 그 장난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 부부는 그 점 때문에 브라이언의 성격이 점점 난폭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다니엘 가족은 건축 관련 허드렛일과 노점, 라우라가 파출부로 번 돈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부부의 별이가 시원찮아 둘째인 후안은 할머니 집에 맡긴 상태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로마스 데 사모라에 거주하는 파라과이 이민자 중에서 형편이 괜찮은 편이다. 다니엘은 돈이 부족해 집을 완성하진 못했지만, 본인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다니엘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시민권이 있어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대다수의 파라과이 이민자들은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그들의 몸은 재산이나 다름없다. 진료 혜택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시민권을 보유하여 다른 파라과이 이민자와 비교해서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오랜 노동의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하여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다니엘 가족은 그나마 기반을 마련한 축에 속하지만, 최근에 이주한 파라과

이 이민자 가정은 경제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태에 있다. 다음 사례는 최근 파라과이 이민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사례 2) 아그리피나(Agrifina) 가족

아그리피나(32살)는 첫째 라겔(7살)과 막내 월슨(3살)을 키우고 있다. 그녀는 파라과이에서 작년에 아르헨티나의 로마스 데 사모라로 이주하였다. 그녀는 친척집 뒤에 방 한 칸을 마련해 살고 있다. 이민 오기 전 그녀는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파라과이의 꼴로니아 알또 베라(Colonia Alto Vera)의 꼴로니아 유니다 협동조합(Cooperativa Colonia Unida)에서 돈을 빌려 10헥타르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작물은 옥수수(maiz)와 땅콩(mani), 만디오카(madioca), 콩(poroto), 고구마(batata) 등을 재배하였다. 그러나 농사 작황이 좋지 않아 협동조합의 이자를 갚지 못해 5헥타르를 협동조합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4년 전에 돌아가신 후 남은 토지에 농사를 짓다가 파라과이 생필품과 음식 값이 너무 올라서 1년 전에 이곳으로 그녀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남은 토지와 집은 형제들에 남겼다고 한다. 그녀를 포함한 11명의 형제 중 5명이 아르헨티나에 있다.

생활비는 같이 살고 있는 여자 형제인 마리아와 올라로부터 집안일을 하는 대가로 받는다. 여자형제들은 가정부(empleada con cama)로 일하고 있다. 그녀들은 주말인 토요일 오후 2시쯤에 집에 와서 일요일 오후 6시에 일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마리아와 올라는 일주일에 각각 300페소를 번다.

앞서 언급했듯이 파라과이 농민은 메르코수르의 영향으로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아르헨티나로 혹은 다른 국가의 이민을 택하고 있다. 아그리피나 가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그리피나는 단칸방에서 자매 두 명과 자녀 두 명이 함께 살고 있다. 그나마 두 자매가 가정부로 일하면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어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두 자매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토요일에 집으로 돌아온다. 아그리피나는 남편이 없어 자매의 도움 없이 자녀를 양육할 방법이 없다. 그녀는 일을 해서 자매들처럼 돈을 벌기를 원하지만

자녀를 돌 볼 사람이 없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2. 파라과이 이민자에 대한 계급적 차별

파라과이 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급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의 정치적 측면의 이민자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이들은 친미독재정권 세력의 탄압을 피해 건너온 부류로 정치인과 군인, 학자 등으로 상류계층에 속한다.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이후에도 안정된 직장과 부를 소유하고 있어 최근의 파라과이 이주 노동자와 경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까사 파라과아(12)를 통해 파라과이 문화를 향유하고 보존하는 노력과 함께 후속세대에게 민족 정체성을 계승하려는 노력을 꾀하는 등, 파라과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러한 자부심과 달리, 이들은 최근의 파라과이 이주노동자와 그들을 같은 부류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한다.

연구자: 파라과이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인으로부터 차별을 많이 받습니까?

대상자: 많이 받지요. 아르헨티나 사람은 파라과이 사람이 극심한 가난(muerto de hambre) 때문에 여기에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파라과이 사람이)병원에 가면 병원의 직원이 화를 내면서 “너희 나라로 가라. 여기는 아르헨티나 사람을 위한 곳이니까 너희들에게 쓸 약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르헨티나 시민권도 있고...(Cesar Paredes, 74세, 남)

인터뷰 대상자인 세사르 빠레데스(Cesar Paredes)¹³⁾는 20세기 중반 부에

12) 까사 파라과아(Casa Paraguaya)는 1950년대 정치적 요인으로 이주한 파라과이 이민자들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것이다. 이 조직은 아주 배타적이어서 최근 20년 사이에 이주한 파라과이 이민자의 가입이 불허되다가 몇 년 전에 문호를 개방하였지만 여전히 폐쇄적이다. 그 예로 연구자가 조사한 두 가정은 까사 파라과아를 알지만 방문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13) 세사르는 파라과이의 이주 노동자 집단과 다른 부류의 파라과이 이민자 집단의

노스아이레스로 이민을 왔다. 그는 파라과이 문화 예술 관련 전문가로서 까사 빠라과야의 명예회원이자 민속예술 디렉터이다. 세사르는 인터뷰 과정에서 그의 집 거실에 전시된 파라과이 전통예술 작품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파라과이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라과이 이주 노동자가 받고 있는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는 그가 파라과이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은 있지만, 파라과이 이주 노동자들 부류와 다르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의 이민자들은 파라과이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아르헨티나인과 차이가 없어 차별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같은 파라과이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이주 노동자들과 구분을 짓고 있다. 즉 파라과이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에스니시티적인 경향에 의해 야기되었다면, 모든 파라과이 이민자들은 아르헨티나인으로 부터 차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만 아르헨티나인의 차별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경제적 요인에 의한 계급적 차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계급적 차별은 파라과이 이민자들이 생계를 위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주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라과이에서도 가난한 계층에 속해 특별한 기술이 없고 DNI(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도 발급받기도 힘들어 단순 노동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라과이 이주 노동자의 수입과 노동 상황에 대해 조사한 세루띠(Cerutti)와 마귀드(Maguid)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은 비공식 경제부문과 일용직, 그 중에서도 건축과 신발 공장, 직물 공장, 노점상,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주변화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DNPS 2009: 52). 또한 아르헨티나인에 비해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임금 수준도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라과이 이주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아르헨티나인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앞선 두 가족의 사례에서 보듯이 파라과이 이주 노동자들은 비공식적 경제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민

역사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까사 빠라과야에서 소개받은 사람이다, 연구자는 2011년 1월에 그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전부터 이어진 태생적 가난은 불법이민과 경제력의 한계로 영주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영주권의 미취득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보장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민자들의 경제적 악순환은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공식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IV.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과 통합의 한계

1. 이민자 통합을 위한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

이주 노동자에 관한 아르헨티나의 입장은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고 사회적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으며, 이러한 결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비델라 법(Ley Videla)을 1981년에 공포하였다. 도메네치(2008)는 이 시기를 인접국 이민자에 대한 ‘배제의 레토릭(retórica de la exclusión)’이 지배 하던 때로 분류하였다. 21세기에 들어 아르헨티나는 인접국 이민자들이 오히려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빠뜨리아 그란데(Patria Grande) 프로그램이 2006년에 실시되었다. 도메네치는 이 시기를 인접국 이민자에 대한 ‘통합의 레토릭(retórica de la inclusión)’이 등장한 때로 분석하였다. 파라과이 이민자를 비롯한 인접국 이민자의 합법적인 정착을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빠뜨리아 그란데 정책을 실시한다. 빠뜨리아 그란데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메르코수르 회원국과 협력 국가¹⁴⁾의 이민자들이 이전 보다 쉽게 영주권과 DNI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5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후 2006년 4월 17일 부터 실시되었다.

영주권 및 DNI 취득 방법¹⁵⁾

14)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이며, 협력국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페루가 있다.

1 단계: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에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가져간다.

- 주민증 혹은 여권 혹은 국적 증명서(원본 과 사본), 영사관에서 취득한 국적증명서는 아르헨티나의 문화국제외교통상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 2장의 증명사진.

이민국에서 임시영주권을 무료로 발급한다. 임시영주권으로 공부와 직업, 출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단계: 이민국에서 연락하면 아래의 것을 제출해야 한다.

- 자국 혹은 3년 전까지의 살았던 곳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영사관에서 검증해야함. 아르헨티나의 관련국 영사관에서도 검증. 만약에 최종 3년을 아르헨티나에서 거주한 경우는 아르헨티나의 범죄경력증명서만 요구함.
- 현 주소에 해당되는 연방경찰서에서 아르헨티나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 국제범죄경력증명서 발급.
- 국립은행과 이민국에 200불을 낸 영수증.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2년 체류 영주권이 발급된다. 아르헨티나 시민과 같은 권리가 부여된다. 60일 이내에 주민증(DNI)가 발급된다.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의 신청자는 총 423,679명이다. 이 가운데 임시영주권을 획득한 수는 126,385명이며,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98,539명이다. 프로그램 신청자의 94.6%는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페루 이민자이다. 이 중 파라과이 이민자는 총 248,144명으로서 58.6%를 차지하여 다른 인접국 이민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참여 비율을 보였다. 임시 영주권과 영주권을

15) 이 자료는 Dirección Nacional de Migraciones, Programa Nacional de Normalización Documentaria Migratoria Guía Para Inmigrantes del Mercosur y Estados Asociados에서 요약 정리한 것이다.

발급받은 이민자는 123,814명으로 빠뜨리아 그란데에 참여한 파라과이 이민자의 절반 정도이다. 그 중에서 영주권을 부여받은 파라과이 이민자는 47,217명으로 그 수가 전체의 약 5분이 1에 불과하다.¹⁶⁾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은 파라과이 이민자를 포함한 인접국 이민자를 통합하고 포용하는 정책으로 출발되었지만, 통계에서 보듯이 영주권의 발급 비율이 높지 않고 유효 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2. 이민자 통합의 한계

최근의 파라과이 이민자에 대한 차별 사례는 이민자와 아르헨티나 사회의 통합을 위해 실시된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 예로서 지난 2009년 3월 10일에 파라과이의 주요 일간지는 파라과이 정부가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를 상대로 인종 차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대서특필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 3월 8일 인데펜디엔테(independiente)와 보카 주니어스(Boca Juniors)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ура간(Huracán) 축구장에서 경기를 펼치던 도중에 발생한 인종 차별적인 응원에서 비롯되었다. 이날 경기에서 인데펜디엔테 응원단은 파라과이 국기와 볼리비아 국기, 그리고 상대팀인 보카 주니어스 응원단을 상징하는 숫자인 12가 쓰인 깃발을 걸어놓은 후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의 내용은 “볼리비아와 파라과이 출신들은 날뛰지 마라”였다. 12번(La 12)의 의미는 12번째 선수라는 의미로서 보카 주니어스의 서포터스를 일컫는다. 인데펜덴시아의 응원단은보카 주니어스를 지지하고 창단했던 사람들이 20세기 초 이탈리아계 이주노동자였다는데 착안하여 이주노동자로 거주하고 있는 파라과이와 볼리비아계 이민자들을 12번에 빗대어 조롱하였다.

인종차별적인 응원에 대해 파라과이 정부가 즉각 대처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몇 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02년에는 인데펜디엔테의 응원단

16) 이와 관련된 통계의 출처는 아르헨티나의 이민국의 보고서인 PATRIA GRANDE: Programa Nacional de Normalización Documentaria Migratoria, INFORME ESTADISTICO, 2010임.

인 붉은 악마(diablos rojos)가 “12번을 환영한다”라는 내용을 볼리비아 국기에 쓴 후 응원을 하였다. 이 경기에서 승리한 인데펜디엔떼 응원단과 선수는 “모두 노래 부르자 보카 주니어스는 상(喪)중에 있으며, 그들은 모두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의 깃동이 새끼들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같은 해 리버 플레이트(River Plate)의 단장인 알프레도 다비체(Alfredo Davicce)는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악화되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법이 제정되면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보카 주니어스의 서포터스가 줄어들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지속적인 일상에서의 차별은 유혈충돌로 이어졌다. 2010년 12월 3일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쪽지역에 위치한 인도아메리카 공원(Parque Indoamericano)¹⁷⁾에서 임시로 거주하던 약 2,000가구 13,500명의 빈민과 인근 지역 주민간의 충돌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태로 총 4명이 죽고 30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빈민의 대부분은 이주 노동자들로 판자로 집을 지어 공원을 점유했었다. 비야 솔다티(Villa Soldati)와 비야 루가노(Villa Lugano) 주민들은 공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이 고조되었고, 이로 인해 양측 간의 충돌이 일어났다. 주민들은 빈민을 상대로 철거를 요구하였고, 양측의 대립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과 함께 충격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23세인 파라과이 청년 베르나르도 살게이도(Bernardo Salgueido)와 28세 볼리비아 여성인 로세마리아 꾸빠냐(Rosemaria Cupeña)는 12월 17일에 연방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된다. 양측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사건 이튿날인 2010년 12월 9일에는 38세의 볼리비아 출신인 후안 끼스빠(Juan Quispe)가 인근 지역 주민의 충격에 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19세 볼리비아 청년인 후안 발레로(Juan Valero)도 주민의 총에 맞아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정부는 이 사태를 제도포비아로 규정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유혈사태 후 아르헨티나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도아메리카 공원을 무단 점유한 빈민들의 90%인 약 13,000명은 비야 미세리아(villa miseria) 혹은 바리오 데 차볼라스(barrio de chobolas)¹⁸⁾ 출신으로 밝혀졌다. 인도아메리

17) 인도아메리카 공원은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두 번째로 큰 녹지를 보유한 공원이다. 공원의 위치는 에스칼라다(Escalada)와 까스파냐레스(Castañares) 거리와 캄뵘라(Cámpora) 도시고속도로 사이에 있다.

카 공원에서 빈민들이 무허가 정착지를 이룬 것은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빠뜨리아 그란데 정책 실시 이후 발생한 두 외교적 사건은 아르헨티나 이민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도아메리카 공원의 유혈 충돌 사건은 이민자를 대하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빠뜨리아 그란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빠뜨리아 그란데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와 이민자 사이의 충돌이 완화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빠뜨리아 그란데 정책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파라과이 정부의 요청으로 빠뜨리아 그란데 연장을 두 차례 하였지만, 그 한계는 분명하였다.

파라과이 외교부의 대변인에 따르면, 파라과이 외교부 장관인 엑토르 라코그나타(Héctor Lacognata)는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인 호르헤 타이아나(Jorge Taiana)에게 수 많은 파라과이 이민자들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빠뜨리아 그란데 연장을 요구 할 것이다. 두 장관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통합과 발전을 위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장관 회의(Cumbre Ministerial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sobre Integración y Desarrollo, 이하 CALC)와 제 28회 리오 그룹의 외교 모임(XXVIII Reunión de Ministros de Relaciones Exteriores del Grupo de Río)을 위해 자메이카에서 만나 양국의 현안을 논의 할 것이다. 파라과이는 이번 11월 30일에 종료되는 빠뜨리아 그란데를 180일간 연장할 것을 한 번 더 요구할 것이다.(ABC color 2009년 11월 3일자 기사에서 발췌)

아르헨티나 정부는 파라과이 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5월 30까지 180일간 빠뜨리아 그란데 연장을 한 번 더 허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연장 정책은 파라과이 이민자를 합법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파라과이 이민자를 비롯한 인접국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장된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은 이전에 접수한 사람 중에서 서류 미비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지 못한 이민자

18) 이 두 단어는 아르헨티나에서 빈민 지역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이다.

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새로운 이민자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빠뜨리아 그란데 연장 프로그램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두 번째 단계 접수가 끝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2006년 4월 이후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을 접수한 이민자 중 임시 영주권과 접수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 임시 영주권 기간이 지난 사람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출처: www.patriagrande.gov.ar)

비공식적인 통계로서 최근 5년간 파라과이를 빠져나간 이민자는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인 50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대부분은 아르헨티나로 유입된 이민자이다. 그러나 연장된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에서는 신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이 생략되었다. 결국 연장된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은 이미 그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민자를 구제하거나 2년 영주권이 만기가 된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즉 최근에 이주한 이민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은 종료된 것과 다름이 없다.

두 번째는 파라과이 이민자의 경제적 능력의 한계이다.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은 많은 수의 파라과이 이민자가 임시영주권과 영주권을 부여받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파라과이 이민자는 임시 영주권 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빠뜨리아 그란데를 신청한 파라과이 이민자수는 248,144명이다. 그 중에서 영주권을 부여받은 파라과이 이민자는 47,217명으로 그 수가 5분이 1에 불과하다. 두 번의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 의연장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파라과이 이민자의 수가 적은 것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300페소(peso)때문이다. 300페소는 미화로 약 200불에 해당된다. 아그리피나의 경우도 300페소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까?

대상자: 이모집에 설거지와 빨래, 청소를 해주면서 공짜로 살고 있고, 먹는 것은 다른 자매들의 집안일을 대신해주면서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자: 왜 당신은 이나와 다른 자매들처럼 밖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대상자: 일을 하러 가고 싶지만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려면 DNI가 필요한데, 그것을 받으려면 300페소를 내야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Agrifina, 30세, 여)

아그리피나는 파라과이 이민자 중에서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그녀는 친척인 아나의 도움으로 단칸방이지만 집세를 내지 않고 살만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아나의 옆집인 볼리비아 이민자 가족은 냉장고도 없어 더운 여름이면 그녀 집에서 얼음을 사가거나 빌려간다. 볼리비아 가족보다 형편이 나아보이는 아그리피나에게도 300 페소는 큰 돈이다. 앞서 봤듯이 300 페소는 일주일 동안 가정부로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매주 번 돈은 생활비로 써야 됴므로 300 페소를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아그리피나는 돈을 벌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300 페소는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액수이다. 이모와 자매의 도움으로 생활 형편이 괜찮은 아그리피나조차도 마련하기 힘든 300페소를 파라과이 이민자들이 선뜻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이었지만, 프로그램의 일회성과 영주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 문제는 영주권과 DNI 발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이 종료된 2009년 이후에 이민 온 파라과이 이민자들은 영주권 취득 절차가 까다로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 이는 파라과이 이민자의 경제적 주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며, 아르헨티나인과 파라과이 이민자간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깊어 질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간단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아르헨티나 거주 파라과이 이민자 차별의 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이민자 통합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이다. 아르헨티나의 파라과이 이민자 차별은 에스니시

티적인 요소보다 계급적 측면에 의해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첫 번째 1950년 중반 정치적 이민을 했던 파라과이 이민자 집단은 그들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있지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파라과이 이주 노동자의 차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정치적 이민을 한 부류로서 직업이나 거주 지역에 있어 아르헨티나인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차별 대상인 파라과이 이민자는 주로 생계를 위해 이민 온 이주 노동자이다. 이들은 다른 이주 노동자들인 볼리비아 이민자와 페루 이민자와 같은 범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아르헨티나인은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페루 사람을 구별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 측면에서 하나의 집단으로서 인식한다. 축구장에서의 인종차별적인 응원과 인도아메리카 공원의 유혈 사태는 바로 이러한 아르헨티나인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민자 차별로 야기된 대립과 외교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민자 정책 패러다임을 ‘배제’에서 ‘통합’으로 전환한다. 그 실천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빠뜨리아 그란데 프로그램의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일부 불법 이주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적 영역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경비는 이민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여전히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진행되어 새로운 이민자들은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치카노를 연구한 로살도(1994)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아르헨티나의 이민자 통합 정책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 로살도는 이민자들이 법적인 시민권을 취득한 후 사회·문화적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시민권(Cultural Citizenship)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이민자가 진정한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적으로도 이민자를 포용하는 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어 문화적 시민권을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기에는 갈 길이 요원해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자국민과 이민자의 대립 구도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인접국 이민자 간의 대립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파라과이 이민자들은 볼리비아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계를 표하고 있다. 이미 볼리비아 이

민자들은 과거 파라과이 이민자들이 했던 의류 노점상을 장악하고 있다. 파라과이 이민자의 위기감은 볼리비아 이민자에 대한 에스니시티적인 차별로 표출되고 있다. 볼리비아 이민자들은 인종과 문화적으로 파라과이 이민자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 두 이민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로 간의 공동체 조직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파라과이 이민자들은 외형상 원주민 피가 많이 섞인 볼리비아 이민자를 차별하고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이민자 차별이 자국민과 이민자의 계급적 대립 뿐만 아니라 이민자 집단 사이의 에스니시티적인 대립도 점차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아르헨티나의 이민 정책은 자국민과 이민자간의 통합을 위한 법적·문화적 정책과 더불어 인접국 이민자간의 대립과 갈등에도 서서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BC color 2009년 3월 8일~10일, 2009년 11월 3일, 2010년 12월 3일~12월 25일
Ultimahora 2009년 3월 8일~10일, 2010년 12월 3일~12월 25일
Clarín 12월 3일~12월 21일
La Nación 2010년 12월 3일~12월 21일.
La Razon 2010년 12월 3일~12월 21일
Dirección Nacional de la Poblacion Secretaría de Interior, Inserción Sociolaboral de los Inmigrantes en la Argentina, 2009.
Dirección Nacional de la Poblacion Secretaría de Interio, Encuesta Inmigrantes en Argentina 2008-2009, 2010.
Dirección Nacional de Migraciones, Patria Grande Programa Nacional de Normalización Documentaria Migratoria, 2010.
Dirección Nacional de Migraciones, Programa Nacional de Normalización Documentaria Migratoria Guía Para Inmigrantes del Mercosur y Estados Asociados, 2006.

PNUD, *Ampliando Horizontes: Emigración Internacional Paraguaya*, 2009.

- 논문 및 저서

BRETAL Eleonor, "La Argentina de la crisis: Desigualdad social, movimientos sociales, política e instituciones", I V Jornadas de Sociología de la UNLP, 2005.

CERRUTTI Marcela, *Diagnostico de las Poblaciones de Inmigrantes en la Argentina*, Dirección Nacional de la Poblacion Secretaría de Interior, 2009.

CERRUTTI Marcela & Maguid, Alicia "Inserción laboral e ingresos de los migrantes de países limítrofes y peruanos en el gran Buenos Aires", Reunión de Expertos sobre Población y Pobreza en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06.

DOMENECH Eduardo, "El multiculturalismo en Argentina: ausencias, ambigüedades y acusaciones", *Estudios*, N. 14, 2003.

_____, "Migraciones internacionales y Estado nacional en la Argentina reciente: De la retórica de la exclusión a la retórica de la inclusión", I I I Congres de la Asociación Latinamericana de Población, 2008.

DOMENECH Eduardo. & MAGLIANO, Maria, "Migración e inmigrantes en la Argentina reciente: políticas y discursos de exclusión/inclusión", *Pobreza, exclusión social y discriminación étnico-racial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Buenos Aires: CLACSO, 2008

GAVAZZO Natalia, "Identidad boliviana en Buenos Aires: las políticas de integración cultural", *Revista Teomai*, N. 9, 2004.

GÓMEZ Pablo y TORRES, Victor, "Redes sociales en la migración paraguaya Brasileira hacia la Argentina: Una análisis comparativo de las redes de ayuda y los vínculos binacionales", X V I Encontro Nacional de Estudos Populacionais, 2008.

GRIMSON Alejandro, "Relato de la diferencia y la igualdad: Los Bolivianos en Buenos aires", *Nueva sociedad*, N. 147 Enero-Febrero, 1997.

_____, "Nuevas xenofobias, nuevas políticas étnicas en Argentina", en Alejandro Grimson y Elizabeth Jelin eds, *Migraciones regionales hacia*

- la Argentina: Diferencia, desigualdad y derechos*, Buenos Aires, Prometeo, 2006.
- HALPERN, Gerardo, "Neoliberalismo y migración: paraguayos en la Argentina en los noventa", *Política y Cultura*, Vol 23, 2005.
- COHEN Néstor, Aportes para un Programa de Integración de la Población Extranjera a la Sociedad y Cultura Nacional, Dirección Nacional de la Poblacion Secretaría de Interior, 2009.
- OTERO Hernán & PELLEGRINO, Adela, "Sharing the City: Residence Patterns and Immigrant Integration in Buenos Aires and Montevideo", Baily, Samuel & Míguez eds, *Mass Migration to Modern Latin America*, Wilmington: Jaguar Books, 2003.
- RENATO Rosaldo "Cultural Citizenship and Educational Democracy, *Cultural Anthropology* 9(3). 1994.
- RIZZO Adriana, "Exclusión/Inclusión. El caso del inmigrante en la Argentina de los tiempos de la globalización: sus huellas en los discursos mediáticos", XXV Congreso Anual em Ciência da Comunicação, 2002.
- VICHINI Nora, "El Mercosur y la migración Intenacional", Expert Group Meeting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5.

❖ ABSTRACT

Limite of Integration and Discrimination of Paraguayan Immigrants in Argentina

Gu, Gyoungmo

This article has analyzed the limite of integration and discrimination of Paraguayan immigrants in Argentina. The most numerous collectivity is the Paraguayan immigrants, with about 325,046 members that reside mainly in the Gran Buenos Aires in 2001.

Paraguayan inmigrantes and their families usually undergo abuses by security forces and the over exploitation and the illegal work to a large extent work informally and for low wages. They also point out numerous problems of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access to the services of public of health, education and housing. For the reason, Argentin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program of Patria Grande in April 17, 2006. This program is that issue a permanent residence and DNI for Latin American immigrants from bordering countries. But the Argentine government does not maintain the program Patria Grande. Paraguayan immigrants are still situated in the increase of the ilegal work and social insecurity.

Key Words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민자, 차별, 통합, 빠뜨리아 그란데

Argentina, Paraguayan Immigrants, Discrimination, Integration, Patria Grande

논문접수일: 2011. 04. 20.

심사완료일: 2011. 05. 22.

게재확정일: 2011. 06. 11.